



TV서 스크린서...광주산 애니메이션이 뜬다



‘브레드 이발소’ 대한민국콘텐츠 대상
 ‘출동! 유후 구조대’ 넷플릭스 진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90편 지원
 방송·극장용 3편 올해 12억원 지원
 ‘주라기캡스’ 극장판 내년 상영 목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이 제작 지원한 3D 애니메이션 ‘출동! 유후 구조대’는 지난해 3월 전세계 가입자 2억명을 보유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 진출했다. 3개 시즌에 걸쳐 인기를 더해진 이 애니메이션은 환경 보존과 동물 보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어린이 교재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KBS에 방영된 광주 ㈜문스터스튜디오의 ‘브레드 이발소’는 그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거머쥐고 유튜브 구독자 55만명을 끌어모으며 국내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귀여운 캐릭터 덕분에 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 팬층이 두터우며 피소드마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 지원한 애니메

이션이 올해 90편을 넘겼다. 광주에서 태어난 애니메이션 10편은 주요 지상파 브라운관에 등장하며 독보적인 시청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진흥원의 ‘CG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으로 탄생한 애니메이션 본편은 총 17편이며, ‘문화콘텐츠기획제작스튜디오운영지원’을 통해 나온 파일럿(시범)은 73편에 달한다. 지난 2010년 ‘우당탕탕 아이쿠’(마로스튜디오)의 EBS 방영을 시작으로 ‘두다다쿵’,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주라기캡스 주라킹’, ‘시노스톤’ 등 10편이 KBS·MBC·SBS 등에 방송됐다.

광주 애니메이션의 성과는 ‘상복’으로 이어졌다. 스튜디오더블유바바의 ‘매직어드벤처’, 스튜디오버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는 2017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휩쓸었고, 이듬해 스튜디오버튼은 ‘주라기 캡스’로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올해는 TV시리즈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3편이 광주서 만들어진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제작사 ㈜퍼니플렉스, ㈜캠프파이어 애니웍스, ㈜스튜디오버튼 3곳과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이들 제작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CG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진흥원은 이들 애니메이션 3편에 대해 총 12억원을 제작비로 지원한다.

퍼니플렉스의 ‘다이노스터’와 캠프파이어애니웍스의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는 오는 2022년 EBS에서 방영될 계획이다. 스튜디오버튼의 ‘주라기캡스’는 내년 하반기 극장 상영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진흥원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투자 유치, 홍보 프로모션 등 만로 확대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새 출발 관공업무 분리...예술활동 지원

전남문화재단은 최근 관공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순선·이하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도약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2009년 5월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출범한 재단은 전남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 오다 지난 2016년 4월 관공업무가 추가돼 전남문화재단으로 개편됐다.

재단의 올해 주요 사업방향은 마한 등 전남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기획사업 발굴·운영, 지난 3월 개소한 ‘전남 예술인 복지 지원센터’ 등 도내 예술인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플랫폼 확대 운영 등이다. 또 재단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행복전남 문화지소’를 올 하반기 고흥, 무안, 해남, 신안에 오픈하는 등 도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단체에 창작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연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도 신규 운영한다.

올해 초부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열며 미션과 목표 및 핵심과제를 도출한 재단은 전남도 지역문화진흥계획 5개년(2020~2024) 계획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해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무등산과 5·18민중항쟁추모탑 앞에 한데 모인 광주산(産) 애니메이션 ‘우당탕탕 아이쿠’ ‘브레드 이발소’ ‘두다다쿵’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캐릭터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오늘을 밝히는 등불”

이이화 선생 유작 ‘동학동민혁명사’ 출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현재와 미래, 자본주의의 문제를 정산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동학의 정신은 3·1운동, 4·19, 광주항쟁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을 반드시 역사의 정가 대야 합니다. 동학도들이 절규했던 인권 문제는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다만 동학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 정신을 문화예술 작품으로 승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주출신으로, 지난 3월 별세한 ‘재야사학의 별’ 이이화 선생은 생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오늘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동학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선생의 필생의 역작이자 유작인 ‘이이화 동학동민혁명사’ (3권·교유서)가 출간됐다.

선생은 사료를 바탕으로 동학농민군이 싸웠던 현장 답사뿐 아니라 동학농민군 후손들과 현지인들의 증언을 수집해 철저히 고증했다. 아울러 조선 관료들의 기록과 일본의 기록물까지 세세하게 훑으며 방대한 자료를 총정리했다.

1894년 발발한 동학동민혁명은 단순한 민란이 아니다. 탐관오리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맞서 민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명제를 내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주창했다. 나아가 이를 빌미로 조선에 파견된 일본의 간섭과 침략에 맞선 변혁운동을 추진했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민초들의 혁명사는 근대사 여명을 밝히는 햇불로 타올랐다는 사실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미래의 교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모두 3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 ‘조선백성들, 참다못해 일어서다’에서는 민란이 발발하게 된 19세기 배경과 동학의 전파 등을 다뤘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조정의 어리석은 행태 등이 담겼다.

2권 ‘침략에 맞서 들불처럼 타오르다’에서는 일본이 조선에 진출해 청일전쟁을 일으킨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농민군을 진압하는 등 농민군 지도자들의 체포과정 등이 수록됐다.

3권 ‘갑오년, 농민군 희망으로 살아나다’에는 전봉준 등 혁명 지도자들이 문초를 받고 처형된 과정이 담겼다. 또한 지도자들의 죽음과 이후 항일의병, 3·1혁명 가담과정에 대한 내용 등도 기록돼 있다.

저자는 “농민군의 지향과 정신은 미래의 역사적 자산이 될 것이며, 통합과 화해는 민주주의 구현에 잣대가 될 것이고, 반외세·자주의 지향은 통일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체부, 예술계 정상화 하반기 지원 확대

생계·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 3차 추경 1569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지원액은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일자리 지원은 현장인력과 온라인·비대면 환경 대응 인력을 함께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생계 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현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9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 232억 원(총 7725명)을 지원한다.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누리집(www.kawfartist.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심사서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성,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개를 지원(319억 원)한다.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등 공연 분야별 일자리를 지원하

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759억 원)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참여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에 149억 원을 배정, 272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33억 원(310명), 지역문화관 소장유물 디지털화 14억 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에 115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연 관람료 159억 원(180만장), 전시 관람료 52억 원(160만 장)을 지원해 예술 소비도 촉진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현대무용단 공연 모습

‘GB 작가스튜디오탐방’ 재개 참여작가 11월30일까지 모집

‘GB 작가스튜디오탐방’이 올 하반기 재개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역 밀착형 정기프로그램 ‘월례회’의 일환인 ‘GB 작가스튜디오탐방’에 참여 작가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집한다.

올해 초 코로나 19의 여파로 상반기 동안 운영이 잠시 연기됐던 GB 작가스튜디오탐방은 오는 12월 까지 매달 한차례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을 살펴가며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말 GB 작가스튜디오탐방에 참여했던 역대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했던 제29회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지역 미술 작가뿐만 아니라 기획자·비평가를 포함하는 등 참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동시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를 비롯해 지역 작가 포함 2인 이상의 팀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로 제29회를 맞이한 GB 작가스튜디오탐방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작품 세계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장이자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해왔다.

광주비엔날레와 지역 예술 공동체의 소통과 교류 방식을 모색했으며 광주·전남 작가들이 함께 모여 예술론과 비평 담론 등을 생성해왔다. 문의 062-608-42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